

[종합]

광양항 협상 지연... 물류 차질 내주까지 계속

운송사업자협 합의문 문구 이의 제기... 최종 타결 실패

삼성 광주전자·금호타이어 등 수출 물량 반출 못해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20일 광주·전남 지역은 전남 전국 차원의 협상 타결로 화물 운송이 속속 재개됐다. 하지만, 광양항과 여수 산단 등 일부 사업장은 개별 협상이 끝나지 않아 물류 차질은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화물연대 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양항 컨테이너지회는 전남 11개 업체로 구성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단가 19% 인상에 합의했지만, 사용자인 운송사업자협의회가 합의문의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이날도 광양항 주변에 컨테이너 530여대를 세워두고 파업을 계속했고, 여수해항청이 대체 운송수단으로 투입된 차량이 일부 화물의 운송을

대신했다.

이 바람에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삼성광주전자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LG이노텍, 한국알프스, 캐리어 등의 수출물량이 제대로 반출되지 못했다. 이날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1일 평균 물동량(5천 100TEU)의 5% 수준인 252TEU에 그쳤다. 부두 장지율도 33.1% 수준에 머물렀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화주 및 운송사 측과의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운송거부와 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협상안에 잠정합의한 여수산단의 경우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사측이 막판 합의문을 조율 중에 있고, 순천 현대하이스코도 협상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경우 노조측의

30%인상안과 사측의 22%인상안이 맞서 이날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자체 차량을 동원해 완제품을 목표량으로 나르려고 있으나, 화물연대가 운송 작업에 복귀해야 물량 반출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대 화물연대 전남지부 홍보부장은 "주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총파업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가운데)이 20일 일본 도쿄 시내 외무성 청사에서 김승 한국 핵특사(오른쪽)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회의실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한·미·일 3개국 핵 협상대표들은 이날 수개월간 정체되고 있는 북한과의 6자회담을 진척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연합뉴스

“광고주 협박 중단을” 한국신문협회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0일 성명을 통해 특정신문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강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뒤흔드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기업들의 경제 행위와 신문산업에 위축시키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에 대해 “사이버 공간이 신문의 자유언론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정보 유통 공간으로 퇴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물류대란 여파 타이어 값 인상

원자재가 상승으로 압박을 받아 온 타이어 제조업체들이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해 물류비 부담까지 늘자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다음달 1일부터 타이어 가격을 8~9% 가량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동안 제조원가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광고비 축소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내부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늘어 시장이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가격 인상 사유를 설명했다.

미쉐린타이어도 내달 21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트럭 및 버스 타이어 가격을 최대 9.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다음주 핵신고 ... 美 테러지원국 해제”

라이스 헤리티지재단 연설

다음주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북 양측과 밀접한 소통을 갖고 있는 미국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다음주에 북한이 핵신고를 발표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비핵화 2단계를 종결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폐기를 예견케 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예견케 하는 운곽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냉각탑 폭파와 같은 이벤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1면 ‘대한조선’서 계속

지난해 말 착공한 2도크 건설 역시 굴착 공사가 막바지공정에 이르는 등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2도크는 길이 460m, 폭 115m 크기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 2종류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 연내 완공돼 내년부터 이곳에서만 연간 14척의 배가 건조될 예정이

다.

대한조선의 현재 수주잔량은 17만~18만 급 벌크선 42척으로 35억 달러(3조5천억원) 규모다. 올해 수주목표는 23척 25억 달러(2조5천억원)다.

한편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열린 이날 명명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박지원·이운석·김영록 국회의원, 허재호·유종근 대주그룹 회장과 광주·전남 각 기업체 대표, 해남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종대기자 jt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머구름이 심상치 않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통령 실장·청와대 수석 프로필

이대통령과 6·3사태 주도... 육고 치르기도

■ 정경길 대통령 실장

대표 저서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이 보여주듯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학 및 리더십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이명박 대통령과는 1964년 ‘6·3 사태’를 함께 주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 실장은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육고를 함께 치렀다. 학계는 물론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마당발’로 유명하다. 행정고시에 합격, 1969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으나 이후 30여년간 학자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01년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2003년 울산대 총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연임했으며 울산대를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학교의 반열에 올려 경영 능력도 인정받았다.

▲경남 함안(66) ▲경북도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미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자문회의 의장 ▲서울대 대학원장

기획력·실천력 탁월 정동기 민정

탁월한 기획력과 함께 정책판단 능력과 실천력이 돋보인다는 평. 인수위 때 법무행정위 간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부산(55·사시18회) ▲한양대 법대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4과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공판·형사부장 ▲법무부 보호국장 ▲대구·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거시경제정책 전문가 박병원 경제

거시경제정책의 손꼽히는 전문가. 행사 17회에 공직에 입문, 옛 경제기획원의 출세코스를 달렸으며 우리금융 지주 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경험도 쌓았다.

▲부산(56) ▲경기도, 서울대 법학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교육정책 자율화 중시 정진곤 교육과학

자율화를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교육의 본질, 근간을 중시해온 학자.

▲전북 김제(58) ▲이리 남성고,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일리노이대학 철학박사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교과부 정책자문위원단 부위원장

시 설

면세유 이어 비료값 폭등 농민 허리 휘다

고유가와 고물가 행진속에 화학비료 값이 대폭 인상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복합비료와 요소비료 등 화학비료 값은 지난 19일 평균 62.9%나 인상됐다. 면세유와 사료 값 등이 오른 상황에서 었던 데 덮친 격이다.

농협은 비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곡물가 상승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학비료 원료의 국제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비료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복합비료는 20kg 기준 69.9%, 요소비료는 66.9%나 올랐다. 정부와 농협, 비료업체가 가격 인상분의 70%를 보조해주기로 했지만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간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다.

농민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93.5%, 사료값은 42.4% 인상됐다. 비료값은 지난해에도 30% 정도 뛰는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어제 영암에선 사료값 폭등과 농가 부채에 시달려온 60대 농민 부부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농민들은 지난 2005년 폐지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부활과 공공비축 매입가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비가 너무 올라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달 초 전국 동시농민 집회를 열고 농산물 출하 거부 투쟁 등을 벌일 방침이다.

농업이 고유가와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아서서 영농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비상이 걸려 있다. 정부는 농촌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 ‘불법외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공무원이 업무를 위한 해외시찰 또는 연수를 빙자해 관광성 외유를 떠나거나 국외여행 경비를 불법 조성하는 등 상당수 해외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떠나는 해외관광’으로 변질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7천31명이 1조원에 가까운 경비를 쓰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그 금액의 규모가 놀랍거니와 이 가운데는 해외시찰, 연수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했거나 여행 경비를 불법조성한 예도 비일비재해 충격적이다. 공직자의 관광성 외유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0회에 걸쳐 총 9억4천4만원을 들여 공무원 910명에게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팀훈련 추진’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행사가 제시하는 관광 위주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보성군도 2004~2006년까지 직원 520명에 대해 국외여행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해외 나들이에 ‘평평’ 쓴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기가 찰 뿐이다.

사실 공무원의 ‘놀자판’ 해외연수·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해외 연수·출장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다잡아야 한다. 연수 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고를 허비한 관련 지자체와 해당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국외여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주도 박재완 국정기획

정통관료 및 행정학 교수 출신의 정책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정부조직 개편과 업무를 주도했다.

▲경남 마산(53)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행정고시(23회) ▲재무부 행정사무관 ▲경실련 정책위원

앵커출신 3선 의원 맹형규 정무

통신기자 출신으로 TV 앵커 등을 거친 3선 의원. 18대 총선에서 ‘물갈이’ 폭풍에 휘말려 한나라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일찌감치 정무 수석으로 거론됐다.

▲서울(60)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남대 언론학부 ▲SBS 앵커 ▲한나라당 대변인, 총재비서실장, 정책위의장 ▲국회 산하위원

다자외교 섭렵 정통과 김성환 외교안보

대외관계를 비롯한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두루 섭렵한 정통 외교관으로 ‘한미외교 강화’와 ‘글로벌 코리아’ 등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정책 추진의 적임자.

▲서울(55) ▲경기도·서울대 경제학과 ▲주미국 참사관 ▲북미국장 ▲주우즈베키스탄·오스트리아 대사 ▲외교부 제2차관

공공의료정책 추진 강윤구 사회정책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사회보험과 보육 정책 등의 분야에서 간뼈가 굵은 복지전문가. ‘참여 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처음 추진했다.

▲부산(58) ▲광주고·고려대 철학과 ▲행사 16회 ▲경제기획원 사무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순천향대 의료과학대학장

대변인 출신 전략가 박형준 홍보특보

한나라당에 손꼽히는 전략 이론가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지난해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대변인과 당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등을 맡았다.

▲부산(49) ▲대일고·고려대 ▲중앙일보 기자 ▲동아대 교수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대변인.